

일부 보건계열 대학생의 구강보건행태에 관한 조사연구

김 영 임

원광보건대학 치위생과

색인: 구강보건지식, 구강보건태도, 구강보건행동, 구강보건행태, 대학생

1. 서 론

오늘날 국민 생활수준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건강에 대한 다양한 욕구가 증가하므로, 건강유지의 필수요소인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과 구강건강관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고 있다. 구강건강관리를 위해서는 구강보건예방, 구강보건교육, 구강보건행태 등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도 개개인의 구강건강 향상에 많은 도움을 주는 분야로서 구강보건행태의 연구가 계속되어 왔으며, 현재 구강건강관리의 한 분야로서 주목받고 있다. 구강보건행태란 구강건강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와 행위의 특성을 지칭하는 말로서 사람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는 사회, 경제, 문화, 심리적 상태 등 여러 환경이 개개인의

특성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개개인의 특성은 곧 개개인의 구강보건행태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구강보건행태는 개인적 차원이나 집단적 차원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유사한 환경 하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집단적인 수준에서 유사한 구강보건행태를 형성하게 된다¹⁾.

그러한 집단 중에서도 대학생은 사회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역군으로, 이 시기는 인생의 가치관을 더욱 정교하게 확립하고 고도의 지식을 습득하며, 미래의 직업을 갖기 위한 준비기간이라 할 수 있다²⁾. 따라서 이들은 비슷한 환경의 인구집단이며, 다른 인구집단과 차별되는 구강보건행태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정 등³⁾은 대학생이 우리나라 인구구성상 큰 집단이며, 구강진료이용의 주체자이자 의존자이고, 이 시기의 구강보건행태가 유년기나 소년기의 경험은 물론 청년기의 경험과 통합되어 있으며 추후의 구강보건행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들어 대학생의 구강보건행태분석이 중요하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윤 등⁴⁾은 대학생들이 자신의 구강건강상태에 대하여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정기적인 구강검진, 구강건강 및 각 개인의 구강상태에 따른 적절한 개인별 구강보건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이 등⁵⁾은 수도권 소재 대학생의 구강병으로 인한 활동제한과 실태에 관한 연구에서 대학생의 활동제한과 구강진료이용은 연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구강진료이용기관에 대한 시간적 부담과 구강병 예방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활동 제한과 연관된 주요 요인이라고 보고하였고, 정⁶⁾은 보건대학 학생들 스스로 자신의 구강건강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보건교육의 부재와 이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체계화된 구강보건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구강보건 분야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작 졸업 후 보건의료인이 될 집단으로 분류되는 보건계열 대학생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현실이다. 보건계열 대학생들은 졸업 후 보건의료인으로서 활동하게 될 집단으로, 이들이 올바른 구강보건행태를 지닌다면 자신은 물론 이들과 접촉하는 여타 집단들에게 구강보건행태에 관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중요하며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일부 보건계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구강보건지식, 태도, 행동 등을 종합한 구강보건행태를 파악하고 분석하여 이후 그들을 대상으로 한 구강보건교육의 기초자료를 마

련할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07년 3월 6일부터 3월 26일까지 전라북도 익산, 전주, 군산에 소재한 3개 대학의 보건계열 대학생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은 비확률표본추출법인 편의추출법에 의해 선정하였다. 설문이 배부된 연구 대상자 600부 가운데 무응답 항목이 많거나 자료가 불충분한 12부를 제외한 588부를 연구 분석에 사용하였다.

2.2 연구방법

학생들에게 설문지의 취지를 설명한 후 자기기입식 설문을 시행하였다.

설문의 내용은 구강보건행태의 구강보건지식, 태도, 행동으로 구성하였으며, 구강보건지식은 주관적 구강건강상태, 주관적 구강보건 지식수준 및 구강건강에 중요도, 구강보건태도는 구강 질환으로 인한 스트레스 경험도 및 학업수행의 지장경험,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에 관한 인지도 및 찬성 여부를 조사하였다. 구강보건행동은 하루 잇솔질 횟수와 시기, 구강위생용품사용, 구강진료기관 이용유무와 마지막 구강진료기관 이용목적, 치과 진료 방해 요인, 구강보건 교육에 대한 사전 경험 여부, 구강보건교육 관련 과목 교육과정 개설여부 및 구강보건교육 관련 교양과목 수강신청 여부를 조사하였다.

2.3 통계분석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 통계분석 프로그램(SPSS 12.0 for window)을 이용하여 시행하였으며, 설문내용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각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특성	구분	빈도(N)	백분율(%)
성별	남자	149	25.3
	여자	439	74.7
계열	비구강건강 관련 계열	344	58.5
	구강건강 관련 계열	244	41.5
학년	1학년	265	45.1
	2학년	201	34.2
	3학년	122	20.7
합계		588	100.0

각 카이자승 분포를 따르는 교차분석법을 실시하였다.

3. 연구 성적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성별은 남자가 25.3%, 여자가 74.7%로 나타났고, 계열별로는 구강건강 관련 학과인 치기공과, 치위생과가 41.5%, 그 외 보건계열학과가 58.5%로 나타났으며, 1학년 45.1%로 가장 많았으며 2학년, 3학년 순이었다.

3.2 성별과 계열에 따른 구강건강 관리에 가장 중요한 인식

3.2.1 주관적 구강건강상태, 주관적 구강보건지식수준 및 구강건강에 중요도

연구대상자의 성별과 계열에 따른 주관적 구강건강상태, 구강보건지식수준 및 구강건강에 대한 중요성은 <표 2>와 같다. 같은 연령대의 다른 사람과 비교한 자신의 구강건강상태에서 건강하다고 응답하는 사람이 23.8%, 보통이라고 응답하는 사람이 39.3%, 건강하지 못하다고 응답하는 사람이 23.3%로 조사되었고,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에 비하여 자신의 구강건강상태에

표 2. 주관적 구강건강상태, 주관적 구강보건지식수준 및 구강건강에 중요도

항목	구분	성별		계열		전체
		남	여	비구강 관련계열	구강관련 계열	
주관적 구강건강 상태	매우 건강하다	23(15.4)	29(6.6)	25(7.3)	27(11.1)	52(8.8)
	건강한 편이다	44(29.5)	96(21.9)	89(25.9)	51(20.9)	140(23.8)
	보통이다	41(27.5)	190(43.3)	139(40.4)	92(37.7)	231(39.3)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	33(22.1)	104(23.7)	76(22.1)	61(25.0)	137(23.3)
	매우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	8(5.5)	20(4.5)	15(4.3)	13(5.3)	28(4.8)
p값		p=0.001**		p=0.301		
주관적 구강보건 지식수준	매우 높다	9(6.0)	8(1.8)	8(2.3)	9(3.7)	17(2.9)
	높다	57(38.3)	131(29.8)	102(29.7)	86(35.2)	188(32.0)
	낮다	75(50.3)	284(64.7)	217(63.1)	142(58.2)	359(61.1)
	매우 낮다	8(5.4)	16(3.7)	17(4.9)	7(2.9)	24(4.0)
p값		p=0.003**		p=0.224		
구강건강의 중요도	매우 중요하다	33(22.1)	85(19.4)	63(18.3)	55(22.5)	118(20.1)
	중요하다	73(49.0)	227(51.7)	171(49.7)	129(52.9)	300(51.0)
	덜 중요하다	32(21.5)	110(25.1)	94(27.3)	48(19.7)	142(24.1)
	중요하지 않다	11(7.4)	17(3.8)	16(4.7)	12(4.9)	28(4.8)
p값		p=0.255		p=0.169		

표 3. 구강질환으로 인한 스트레스 경험도 및 학업수행의 지장경험

항 목	구 분	성별		계열		전체
		남	여	비구강 관련계열	구강관련 계열	
스트레스 경험도	매우 그렇다	18(12.1)	39(8.9)	41(11.9)	16(6.6)	57(9.7)
	그렇다	66(44.3)	210(47.8)	160(46.5)	116(47.5)	276(46.9)
	아니다	45(30.2)	148(33.7)	105(30.5)	88(36.1)	193(32.8)
	매우 아니다	20(13.4)	42(9.6)	38(11.1)	24(9.8)	62(10.6)
	p값	p = 0.326		p = 0.122		
학업수행 지장경험	매우 그렇다	7(4.7)	13(3.0)	12(3.5)	8(3.3)	20(3.4)
	그렇다	55(36.9)	111(25.3)	106(30.8)	60(24.6)	166(28.2)
	아니다	68(45.6)	252(57.4)	173(50.3)	147(60.2)	320(54.5)
	매우 아니다	19(12.8)	63(14.3)	53(15.4)	29(11.9)	82(13.9)
	p값	p = 0.025*		p = 0.169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E0.01$). 계열에 따른 의식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자신의 구강보건지식수준을 성별에 따라 높다고 응답하는 사람이 32.0%, 낮다고 응답하는 사람이 61.1%로 나타났으며,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구강보건지식수준이 높게 응답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E0.01$). 계열에 따른 의식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성별과 계열에 따른 구강건강 중요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2.2 구강질환으로 인한 스트레스 경험도 및 학업수행의 지장경험

연구대상자의 성별과 계열에 따른 구강질환으로 인한 스트레스 경험도 및 학업수행의 지장경험은 <표 3>과 같다. 구강질환으로 인하여 일상에서 스트레스 경험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구강질환으로 인하여 학업수행에 지장을 겪은 경험정도는 아니라고 응답한 사람이 54.5%

로 가장 많았으며,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3.4%에 불과하였으며, 남학생이 여학생과 비교하여 학업수행에 지장경험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E0.05$). 계열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3 성별과 계열에 따른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에 대한 태도

3.3.1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에 대한 인지도 및 찬성여부

연구대상자의 성별과 계열에 따른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에 대한 인지도 및 찬성 여부는 <표 4>와 같다.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알고 있다는 비율이 49.8%로 나타났으며,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인지도가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E0.01$). 계열에 따른 인지도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E0.01$).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추진에 대한 질문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찬성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계열에 따른 찬성여부는 구강관련 계열에서 비구강관련 계열

표 4.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에 대한 인지도 및 찬성여부

항 목	구 분	성별		계열		전체
		남	여	비구강 관련계열	구강관련 계열	
인지도	안다	57(38.3)	236(53.8)	127(36.9)	166(68.0)	293(49.8)
	모른다	92(61.7)	203(46.2)	217(63.1)	78(32.0)	295(50.2)
	p값	p = 0.001**		p = 0.000**		
찬성여부	찬성	98(65.8)	259(59.0)	184(53.5)	173(70.9)	357(60.7)
	반대	8(5.4)	22(5.0)	15(4.3)	15(6.1)	30(5.1)
	모르겠다	43(28.8)	158(36.0)	145(42.2)	56(23.0)	201(34.2)
	p값	p = 0.283		p = 0.000**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E0.01).

3.4 성별과 계열에 따른 구강보건 행동

3.4.1 하루 평균 잇솔질 횟수 및 시기

연구대상자의 성별과 계열에 따른 하루 평균 잇솔질 횟수와 시기는 <표 5>와 같다.

하루 평균 잇솔질 횟수는 남학생이 하루 평균 2번 51.0%, 여학생이 하루 평균 3번 48.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E0.01). 계열에 따라서는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잇솔질 시기는 아침식사 후가 가장 많았으며 잠자기 전, 저녁식사 후 순으로 나타났다.

3.4.2 잇솔질 외 보조구강위생용품 사용

연구대상자의 성별과 계열에 따른 잇솔질 외 보조구강위생용품을 사용하는지는 <표 6>과 같이 안한다가 56.1%이었고 사용하는 사람의 경우 구강 청결제 사용, 치실 사용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pE0.05) 계열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표 5. 하루 평균 잇솔질 횟수 및 시기

항 목	구 분	성별		계열		전체
		남	여	비구강 관련계열	구강관련 계열	
하루 잇솔질 횟수	하루 1번	15(10.1)	4(0.9)	12(3.5)	7(2.9)	19(3.2)
	하루 2번	76(51.0)	192(43.7)	151(43.9)	117(48.0)	268(45.6)
	하루 3번	51(34.2)	212(48.3)	161(46.8)	102(41.8)	263(44.7)
	하루 4번 이상	7(4.7)	31(7.1)	20(5.8)	18(7.3)	38(6.5)
	p값	p = 0.000**		p = 0.568		
잇솔질 시기	아침 식전	39(6.7)	159(27.2)	114(19.5)	84(14.4)	198(33.8)
	아침 식후	111(19.0)	314(53.7)	244(41.7)	181(30.9)	425(72.6)
	점심 식후	45(7.7)	200(34.2)	154(26.3)	91(15.6)	245(41.9)
	저녁 식후	59(10.1)	202(34.5)	155(26.5)	106(18.1)	261(44.6)
	잠자기 전	77(13.2)	295(50.4)	209(35.7)	163(27.9)	372(63.6)
	간식 후	7(1.2)	23(3.9)	18(3.1)	12(2.1)	30(5.1)

* 잇솔질 시기는 복수응답임.

표 6. 잇솔질 외 보조구강위생용품 사용

항 목	구 분	성별		계열		전체
		남	여	비구강 관련계열	구강관련 계열	
보조구강	치실 사용	23(15.4)	57(13.0)	44(12.8)	36(14.8)	80(13.6)
위생용품	구강 청결제 사용	34(22.8)	56(12.8)	55(16.0)	35(14.3)	90(15.3)
사용	치간 칫솔 사용	11(7.4)	35(8.0)	27(7.8)	19(7.8)	46(7.8)
	잇몸약 복용	3(2.0)	2(0.5)	5(1.5)	0(0.0)	5(0.9)
	안한다	70(47.0)	260(59.2)	191(55.5)	139(57.0)	330(56.1)
	기타	8(5.4)	29(6.5)	22(6.4)	15(6.1)	37(6.3)
	p값	p = 0.014*		p = 0.511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차이를 보였으나(pE0.01), 계열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4.3 치과 방문여부 및 마지막 방문 목적

연구대상자의 성별과 계열에 따른 치과 방문 여부 및 마지막 방문목적은 <표 7>과 같다.

치과 방문여부는 90.8% 경험이 있다고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pE0.01) 계열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최근 치과를 방문하게 된 목적은 우식치료가 51.4%로 가장 많았고, 보철이 10.7%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3.4.4 치과 진료의 방해 요인

연구대상자의 성별과 계열에 따른 치과 진료 방해 요인은 <표 8>과 같이 구강진료에 대한 공포가 30.1%, 심리적 거부감과 진료비 부담이 각각 24.0% 순으로 나타났으며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에게서 구강진료에 대한 공포가 주요한 치과진료 방해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별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pE0.01) 계열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7. 치과 방문여부 및 마지막 방문목적

항 목	구 분	성별		계열		전체
		남	여	비구강 관련계열	구강관련 계열	
방문여부	경험	126(84.6)	408(92.9)	312(90.7)	222(91.0)	534(90.8)
	비경험	23(15.4)	31(7.1)	32(9.3)	22(9.0)	54(9.2)
	p값	p = 0.002**		p = 0.906		
마지막 방문목적	우식 치료	55(36.9)	247(56.3)	165(48.0)	137(56.1)	302(51.4)
	치주질환 치료	31(20.8)	31(7.1)	44(12.8)	18(7.4)	62(10.5)
	치아 교정	6(4.0)	26(5.9)	16(4.7)	16(6.6)	32(5.4)
	보철	23(15.4)	40(9.1)	7(10.8)	26(10.7)	63(10.7)
	치과질환치료	8(5.4)	32(7.3)	26(7.5)	14(5.7)	40(6.8)
	기타	26(17.5)	63(14.3)	56(16.2)	33(13.5)	89(15.2)
	p값	p = 0.000**		p = 0.146		

표 8. 치과 진료의 방해 요인

항 목	구 분	성별		계열		전체
		남	여	비구강 관련계열	구강관련 계열	
치과진료 방해요인	심리적 거부감	48(32.2)	93(21.2)	87(25.3)	54(22.1)	141(24.0)
	구강진료에 대한 공포	28(18.8)	149(33.9)	94(27.3)	83(34.0)	177(30.1)
	진료비 부담	37(24.8)	104(23.7)	92(26.7)	49(20.1)	141(24.0)
	구강진료 기간이 길지	20(13.4)	72(16.4)	48(14.0)	44(18.0)	92(15.6)
	모른다는 부담감					
	기타	16(10.8)	21(4.8)	23(6.7)	14(5.8)	37(6.3)
	p값	p = 0.000**		p = 0.132		

3.5 성별과 계열에 따른 구강보건교육 사전경험 및 교육과정 개설, 교양과 목 수강신청 여부

3.5.1 구강보건교육 사전경험 여부

연구대상자의 성별과 계열에 따른 구강보건

교육 사전경험은 <표 9>와 같이 구강보건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이 64.6%로 높게 나타났다으며, 성별, 계열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9. 구강보건교육 사전 경험 여부

항 목	구 분	성별		계열		전체
		남	여	비구강 관련계열	구강관련 계열	
구강보건교육 사전경험	경험	89(59.7)	291(66.3)	224(65.1)	156(63.9)	380(64.6)
	비경험	43(28.9)	122(27.8)	99(28.8)	66(27.0)	165(28.1)
	모르겠다	17(11.4)	26(5.9)	21(6.1)	22(9.1)	43(7.3)
	p값	p = 0.068		p = 0.399		

표 10. 구강보건교육 관련 과목 교육과정 개설 및 구강보건교육 관련 과목 교양과목 수강신청 여부

항 목	구 분	성별		계열		전체
		남	여	비구강 관련계열	구강관련 계열	
구강보건교육 관련 과목	찬성	99(66.4)	283(64.5)	192(55.8)	190(77.9)	382(65.0)
	반대	23(15.4)	65(14.8)	74(21.5)	14(5.7)	88(15.0)
교육과정 개설	모르겠다	27(18.2)	91(20.7)	78(22.7)	40(16.4)	118(20.0)
	p값	p = 0.789		p = 0.000**		
구강보건교육 관련 교양과목	수강	80(53.7)	215(49.0)	132(38.4)	163(66.8)	295(50.2)
	비수강	37(24.8)	110(25.0)	24(36.0)	23(9.4)	147(25.0)
수강신청 여부	모르겠다	32(21.5)	114(26.0)	88(25.6)	58(23.8)	146(24.8)
	p값	p = 0.497		p = 0.000**		

3.5.2 구강보건교육 관련 과목 교육과정 개설 및 구강보건교육 관련 교양과목 수강신청 여부

연구대상자의 성별과 계열에 따른 구강보건교육 관련 과목을 교육과정에 개설 및 대학에서 구강보건교육 관련 과목을 교양과목으로 개설시 수강신청 여부 의사는 <표 10>과 같다.

구강보건교육 관련 과목 교육과정 개설은 찬성이 65.0%로 나타났으며, 구강관련 계열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계열에 따른 구강보건교육 관련 과목 교육과정 개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p < 0.01$) 성별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구강보건교육 관련 과목이 교양과목으로 개설시 수강신청 여부는 수강한다가 50.2%로 높게 나타났으며, 계열에 따른 교양과목 수강신청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1$). 성별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4. 종합 및 고안

오늘날 사회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평균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만성 질환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들 질병들은 국민의 건강 유지를 저해하고 정기적인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켜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 구강건강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라고 보인다⁷⁾. 바람직한 구강건강행태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태도나 신념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구강보건에 대한 태도는 구강보건 행위를 설명하는 요인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기도 하지만 구강보건 태도 그 자체로서 가치를 가지기도 한다. 구강건강에 대한 태도가 구강보건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사회적 인식을 결정하기도 한다⁸⁾.

본 연구에서는 보건계열 대학생들의 구강보건 의식 및 행동에 관해 연구 조사하여 구강보건교육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구강건강에 대한 인식 정도,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에 대한 인식과 찬성여부, 구강보전행동과 구강보건교육 관련 교육과정 개설 및 교양과목 개설시 수강신청 여부를 조사하였다.

일부 보건계열 대학생들의 71.1%가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나 자신의 구강건강상태에 대하여 32.6%만이 건강하다고 응답하였다. 이와 같이 학생들 스스로 자신의 구강건강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체계화된 구강보건교육을 받지 못하여 구강건강관리에 큰 비중을 두지 않았고 구강건강상태도 건강하지 않다고 응답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 등⁸⁾은 대학생의 90% 이상은 구강건강이 중요한 건강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으나 자신의 구강보건지식수준이 낮다고 응답한 대학생의 비율이 약 74%에 이르며, 박⁹⁾은 건강수준은 남녀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하였으며, 한과 김¹⁰⁾은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한 평가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주관적 구강건강 상태를 살펴본 결과,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에 비하여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일치하였다.

구강보건태도 중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에 대한 태도에서 사업실시를 찬성하는 비율이 약 60.7%로 나타났으며, 김¹¹⁾은 보건계열 대학생이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에 50.7%가 찬성하였고, 이 등¹²⁾은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에 대해 77.7%의 학생들이 찬성에 응답하였고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실시하면 치아우식증 예방효과가 적어도 50%의 효과를 나타낸다고 밝히고

있고, 시민에 대한 이 등¹³⁾의 조사결과는 53.55%로서 시민단체구성원에 대한 신 등¹⁴⁾의 조사결과 48.5% 보다는 높았다. 또한 비구강관련 전공계열 대학생들은 찬성률이 53.5%로 반대율 4.4%보다 월등히 높았으나, 모르겠다고 판단을 유보한 경우가 42.2%로 이들 응답자에게 불소의 장점을 더욱 부각시켜 수돗물불소농도 조정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정확한 교육이 필요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구강보건행동 중 잇솔질은 구강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기본적인 쉽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중요한 구강건강 관리 방법 중의 하나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하루 평균 잇솔질 횟수가 남학생이 하루 평균 2번 51.0%, 여학생은 하루 평균 3번 48.3%로 나타났다. 서¹⁵⁾와 이¹⁶⁾의 연구에서도 하루 평균 잇솔질 횟수가 여자가 3.3회, 남자가 2.6회로 여자가 남자보다 잇솔질 횟수가 많다고 하였다. 잇솔질 시기는 아침 식사 후 72.6%, 잠자기 전 63.6%, 저녁식사 후 44.6%로 나타났다. 잇솔질만으로 부족한 부위는 보조구강위생용품 사용이 권장되는데 56.1%가 구강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15.3%만이 구강 청결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등¹⁷⁾은 보조구강위생용품 중에서 가장 많이 권장되고 있는 것은 치실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 보조구강위생용품은 자신의 구강에 맞게 선택하고 사용할 때 효과적이지만 잘못 사용할 경우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보조구강위생용품들의 사용법에 대해서도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구강진료기관 이용경험율이 90.8%이었으며 전국적인 조사에서 청년 인구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구강진료기관 이용률이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청년인구에 속하는 대학생의 구강진료 이용률이 높았던 것은 대학생의 사회적 경제적 수준이 적어도 중산층 이상은 되기 때

문에 나타난 결과로 사료되었다¹⁸⁾. 구강진료기관의 마지막 방문 목적에서는 우식치료가 51.4%, 보철치료가 10.7%로 그 중 치아우식증 치료가 가장 많았고 이는 다른 연구에서 나타난 전체 연령대의 방문 목적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학생들의 구강건강에 대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상대적으로 구강보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정기적인 검진이나 정확한 홍보 및 구강병 예방에 대한 구강보건교육을 통해 구강건강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를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조사대상을 일부 지역에 소재한 대학에 다니는 학생에 국한시켰으므로 우리나라 보건계열 대학생들의 일반적인 결과로 단정 짓기에는 제한점이 많을 것이며, 단면조사가 가지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후속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5. 결 론

보건계열 대학생들의 구강보건 인식과 태도 및 행동을 성별과 계열별로 비교 조사하여 이들의 구강건강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구강보건교육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일부 지역 보건계열 대학생 588명을 대상으로 2007년 3월 6일부터 26일까지 구강보건행태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다수의 학생들은 구강건강이 중요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으나 자신의 구강보건 지식수준이 높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여

학생이 남학생보다 자신의 구강건강상태에 대하여 부정적이었다.

2.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에 대하여 학생의 49.8%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60.7%가 찬성하였으며,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찬성률이 높았다. 그러나 비구강관련 전공계열의 대학생들은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에 대하여 42.2%가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3. 하루 평균 잇솔질 횟수는 성별에 따라 남학생이 하루 평균 2번 51.0%, 여학생이 하루 평균 3번 48.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1$). 계열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잇솔질 시기는 아침식사 후가 가장 많았으며 잠자기 전, 저녁식사 후 순으로 나타났다.
4. 치과 방문여부는 90.8% 경험이 있다고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p < 0.01$), 계열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최근 치과를 방문하게 된 목적은 우식치료가 가장 많았고, 성별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p < 0.01$), 계열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5. 구강보건교육 관련 과목을 교육과정 개설시 찬성이 65.0%로 나타났으며, 계열에 따른 구강보건교육 관련 과목 교육과정 개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1$). 또한 구강보건교육 관련 과목을 교양과목으로 개설시 수강신청 여부는 수강한다가 50.2%로 높게 나타났다. 계열에 따른 교양과목 수강신청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1$).

참고문헌

1. 김정순, 김철준, 문옥륜 외 8인. 일반보건학.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4:57-60.
2. 박광진. 대학생 섭식실태 조사분석. 대한구강보건학회지 1992;6(1):53-56.
3. 정기천, 이흥수, 김수남. 앤더스 모형을 이용한 우리나라 일부 대학생의 구강진료 이용행태에 관한 연구. 대한구강보건학회지 2003;27(3):357-373.
4. 윤경규, 최길라, 김종열. 부산시 초등양호교사의 구강보건인식도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구강보건학회지 1993;10(2):32-38.
5. 이재승, 윤영만, 이흥수, 김수남. 우리나라 일부 대학생의 구강병으로 인한 활동 제한실태에 관한 연구. 대한구강보건학회지 2001;25(3):245-258.
6. 정수하. 보건대학 학생의 구강보건행태. 원광대학교 보건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7. 송설경. 일부 대학생의 구강보건인식 및 태도에 관한 조사연구. 원광대학교 보건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8. 이재승, 이흥수. 일부 수도권 대학생의 구강보건행태와 그 연관요인. 대한구강보건학회지 2004;28(3):331-346.
9. 박은옥. 취업과 결혼상태가 남녀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지역간호학회지 1995;6(1):84-97.
10. 한경혜, 김진희. 일. 가족 상호작용에서의 성별차이. 한국사회학회 2003;37(3):57-83.
11. 김영임.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에 관한 보건계열 대학생의 인식 조사연구. 원광대학교 보건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12. Lee MK, Binns CW, Kim KH. The health belief model - Is it relevant to Korea? Korean Journal of Health Education and

- Promotion 2000;2(1)1-:1-19.
13. 이충섭, 성진호, 김동기. 수돗물불소화지역과 비불소화지역의 공직자 및 일반 주민의 수돗물불소화사업에 대한 인식도 연구. 대한구강보건학회지 2003;27(2):219-236.
 14. 신동근, 김종배, 백대일, 문혁수. 시민사회단체 구성원의 도시관급수불화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구강보건학회지 2002;26(2):181-196.
 15. 서은정. 건강행위간의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성, 연령별 차이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16. 이태현. 사업장 근로자의 구강보건지식, 태도 및 행동. 부산대학교대학원 치의학 석사학위논문. 1997.
 17. 김종배, 백대일, 문혁수, 진보형, 송현희. 구강환경관리용품의 선택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구강보건학회지1992;16(2):493-504.
 18. 이재광, 최유진. 구강보건지식도 및 관리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경희대치대 논문집 1982;4:91.

Abstract

A study on the health science college students' dental health behaviors

Young-Im Kim

Dept. of Dental Hygiene, Wonkwang Health Science College

Key words: Dental Health Knowledge, Dental Health Attitude, Dental Health Action, Dental Health Behaviors, An University Student.

I got the following conclusion that analyzes the dental health recognition, attitude and the action of the students who major in health section executing questionnaire about dental health behaviors from March 3 through 26 with health-related university students in some area in order to arrange the fundamental data that manage their mouth health rationally by using the investigation and comparison by sex and department in dental health teaching.

The results obtained were as follows:

1. A large number of students recognized dental health as an important problem, but they believed that the level of their knowledges on dental health was not so high and female students were more negative than male students with regards to their own dental health condition.
2. 49.8% of the students know about tap water fluoridation program control business and 60.7% agreed and boy's approval rate was higher than girl's. But 42.2% of the not-related buccal department's students have a reservation about tap water fluoridation program control business.
3. Average brushing number of the boy is 51.0% 2 times a day according to sex, A girl appeared highest by 48.3% 3 times a day and ther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p \leq 0.01$). there wasn't statistically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department. Also, the period of the brushing was the most right after a breakfast, in the order of before sleep and after dinner.
4. Whether they go to the dentist's or not, 90.8% of them say 'yes', the result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sex ($p \leq 0.01$). but It didn't show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department.

Also, the purpose for visiting the dentist's office lately was the most caries treatment, and ther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sex ($p \leq 0.01$), but there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department.

5. Oral health education-related subject approval's rate when the education course open is 65.0% ther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department ($p \leq 0.01$). Also when oral health education-related subject as the liberal arts open, the rate of taking a course application showed 50.2% high appear. ther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department($p \leq 0.01$).